

12

...waiting...

대림 ③

산호세 한인 순교자 성당 성심 성가대



주 제:	“당신은 누구요?”	“대림 제 3 주일”	2008년 12월 14일
복음 묵상:	[요한 1,6-8,19-28]	[이사 61,1-2,10-11]	[1 데살 5,16-24]

대림절은 인생의 여정에서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며 그 길 위에서 있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때입니다.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지금 나는 어떤 길 위에서 있는가? 앞으로 나는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 가야할 길을 더욱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헛된 길이었다면 이제 부터는 참된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길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옳은 길 이 아니었다면 앞으로 가는 길도 그른 길 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원리중의 하나는 '우리가 그분의 길 이 아니라 그 분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수많은 반대와 어려움 속에서도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의 문을 여셨던 요한 23 세께서 공의회 소집 명령을 내리시며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 이 하느님께로 향하는 길 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일인데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하느님의 길, 하느님의 일, 하느님의 뜻이 내가 가고 싶은 길, 내 마음 내키는 일,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느님께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대림절은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통해 하느님께로 가는 길을 다시 찾는 때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니 만큼 티와 흠이 없이 살면서 하느님과 화목 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2 베드 3, 14)이 우리가 받아야 할 회개의 세례입니다.

(전주 용머리본당 김영수 신부님 강론중에서)

1. 가족 동정 및 기도 요청

- 그동안 교실 문제로 부족한 연습 시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오니 참조하시고 어려우시더라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14 일, 21 일)연습시간 연장: 3:00 시

- 이은순 아네스 자매님. 1-2 주의 여정으로 LA 에 가십니다. 모든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 인후자 엘리사벳 자매님; 11/25 일 2 개월 여정으로 한국에 떠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신행주 요세피나자매님, 허경애 수산나 자매님 그리고 예로니모 형제님 모두 편안한 여행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공지 사항:

총회 공고

2009 년의 새해를 맞으며 지나온 2008 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의 새해를 준비하고자 다름과 같이 총회를 소집을 공고 합니다.

다 음

일시 및 장소: 2008 년 12 월 14 일 (일) 교중 미사후 연습실

의제: 2008 년 경과 및 회계보고, 신임 단장 선출 및 기타

- 소식지 에 그 주의 복음말씀을 읽고 묵상한 후 미사에 참석하여 더 많은 은혜를 받으십시오.
- 화답송은 매주 토요일까지 성가대 소식지에 실려 음원과 악보를 보내겠으니 꼭 해 보시고...
- 성탄 특송곡은 웹에 성가대 연습실에 각 파트별로 올라있으니 연습을 하십시오.

<http://www.sjkoreancatholic.org/node/10824>

- 요셉회 송년파티에 성심 성가대가 초대받았습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소: 본당. 일 시: 12 월 27 일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대사제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 알아 보게 하였다. 이 때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는 조금도 숨기지 않고 분명히 말해주었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다시 묻자 요한은 또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예언자요?" 그들이 다시 물었을 때 요한은 그도 아니라고 하였다.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해 줄 말이 있어야 하겠으니 당신이 누군지 좀 알려 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소?" 이렇게 다그쳐 묻자 요한은 그제야 "나는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 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은 바리사이파에서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또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요한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다만 물로 세례를 베풀 따름이요. 그런데 당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 한 분이 당신들 가운데서 계십니다. 이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이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만한 자격조차 없는 몸이요."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다니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1분 명상

♡ 진짜 행복?♡



사람들은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라기보다 남에게 보이려고 더 애를 씁니다.

남에게 행복하게 보이기 위해 애쓰지만 앓는다면 스스로 만족하기는 그리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보이려는 허영심 때문에 자기 앞에 있는 진짜 행복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시기로 한 주님이 오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해야 할 것은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탕: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 주신 하느님의 뜻입니다. (1 데살 5,16)"